

GS칼텍스, 정유설비 트러블 장기화

6월11일 중질유분해에 18일 등경유탈황 고장 ... 생산차질 80만배럴

GS칼텍스의 여수공장이 10일 전부터 일부 설비의 고장으로 일부 석유제품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GS칼텍스는 6월11일 여수공장의 중질유 분해시설이 고장난데 이어 18일에는 등경유탈황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고 6월22일 밝혔다.

고장으로 중질유분해시설에서 45만배럴, 등경유탈황시설에서 35만배럴 등 80만배럴의 등유와 경유가 생산 차질을 빚었다.

GS칼텍스는 6월25일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경유 등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져 정부 비축유 87만 배럴을 긴급 임차해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근 주유소에 석유제품이 모자라게 된 것이 GS칼텍스 공장의 고장 때문인데 책임을 주유소의 사재기로 몰아놓고 고장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6월 들어 15일까지 휘발유 수요가 28%, 경유는 40% 급증하는 등 공급물량을 맞추지 못했을 뿐 고장 때문에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공장에서 고장이 나기 전 이미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장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공급이 더욱 어렵게 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공급차질 속에서도 수출물량을 채우기 위해 국내 주유소 공급물량을 뺀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현재 수출물량은 2-3개월 전에 선적을 끝내 국내 공급물량을 수출용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23>